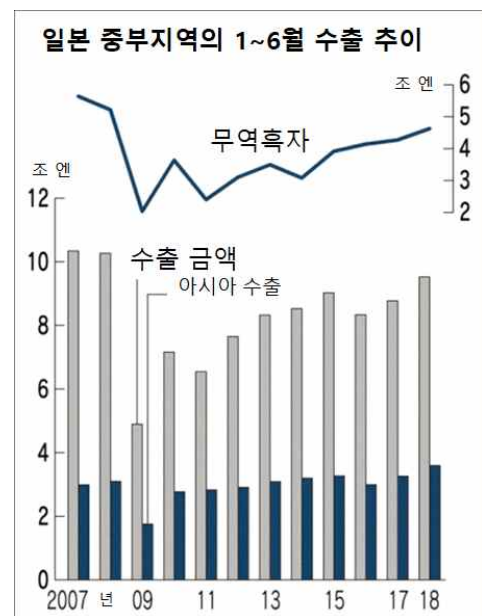


나고야 지역, 아시아 수출액 과거 최고

- 나고야를 포함한 일본 중부지역에서 수출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, 그 중에서도 아시아(특히 중국)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
- 품목으로는 자동차, 금속가공기계, 전자부품 등 나고야 지역이 강한 제조업 분야가 많으므로 산업구조가 유사한 우리나라에게도 기회로 간주됨

□ 나고야의 아시아 수출 증가

- 일본 나고야세관 관내의 2018년 1~6월 아시아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% 증가한 3조 5953억 엔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
 - 중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, 자동차 부품, 공작기계 등이 대폭 증가한 것이 요인
- 나고야를 포함한 일본 중부 5현(아이치, 기후, 미에, 나가노, 시즈오카) 전체의 '18년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9% 증가한 9조 5213억 엔
 - '15년 상반기의 9조 205억 엔을 상회하여 '08년 리먼 쇼크 이후 최고를 기록
- 중국에 대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여 5현의 아시아 수출에서 자동차 수출은 23% 증가한 2675억 엔
- '18.6월 단월의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9% 증가한 1조 6901억 엔으로, 중부지역의 수출이 현재 17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는 상황
- 아시아 수출 증가에 가장 크게 공헌한 품목은 공작기계
 - 중국 및 한국에서 스마트폰 생산설비를 증강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보이며 금속부품을 가공하는 머시닝센터의 수출이 증가
 - 인건비 인상을 배경으로 한 생력화(省力化) 투자도 왕성하여, 특히 자동차 산업 관련 공장기계의 수주가 많고 중국 외에 대만이나 인도와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음




자료 : 닛케이신문(2018.7.20)

- 아시아 외의 지역에서는 EU 수출이 소형 가솔린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 ~~코~~ 13% 증가, 미국 수출은 2% 증가

□ 일본 전체 수출도 호조

- 일본 전체에서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로는 10년 만에 40조 엔을 돌파
 - 일본의 '18년 1~6월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.2% 증가한 4조 1305억 엔으로 2년 연속으로 전년동기를 상회, 상반기에 40조 엔을 초과하는 것은 '08년 이후 처음임
 - 전체에서도 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장치, 자동차, 금속가공기계, 전자부품 등 증가
- 한편 수입액은 9% 증가한 4조 8963억 엔, 상반기로서는 2년 연속 증가
 - 특히 석유제품에 사용하는 원유·조유가 11% 증가한 5101억 엔, 화력발전에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(LNG)는 9% 증가한 3698억 엔
 - 원유·조유 및 LNG는 수입수량은 감소했지만 가격 상승이 수량 감소분을 상회하고 수입액이 증가
- 무역흑자는 8% 증가한 4조 6250억 엔, 3년 연속으로 전년동기 금액을 상회

□ 시사점

- 미국발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경제 악화에는 큰 영향이 보이지 않음
 - 우리나라도 '18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.5% 증가한 297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세계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는 것으로 예정
 - 일본에서 자동차, 전자부품 등의 수출이 증가한 것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우리나라에게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략적인 수출 계획의 추진이 필요
- 나고야를 비롯한 일본 중부는 자동차, 중공업 중심 제조업이 강한 지역으로 한일재단 사업에서도 제조혁신 현장리더 육성, 모노즈쿠리 IoT 연수 등의 일본과정으로 동 지역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고 있음. 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8.7.19./20.), 닛케이산업신문(2018.7.25.)